

■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5>

탐재천의(貪財賤義)

재물에 욕심내고 의로움을 천하게 생각하다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왕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견고한 제방이라도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듯 왕조도 아주 조금씩 무너져 간다. 전한(前漢)이 왕망(王莽)에게 망한 것을 두고 왕망을 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사실 한왕조에는 이미 왕망에게 나라를 빼앗길 조짐들이 나타났는데도 왕조를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한왕조의 황제에게 있다는 것을 간과(看過)한 시각(視角)이다.

선제(宣帝)가 전한을 중흥(中興)시켰다고 말한다. 선제는 무제의 증손자로 태자였던 그의 할아버지가 무고(巫蠱)의 화(禍)를 당하였고, 그 때 겨우 태어나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간신히 죽음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시정잡배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어렵게 자랐다. 그리고 황제가 되었다. 그 뒤를 이은 원제(元帝)로부터 한왕조는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권력만을 탐하는 석현(石顯)같은 사람을 믿고 정치를 하였던 것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원제라고 자기가 물려받은 왕조를 망치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사고 없이 나라가 무사태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진(地震)이 일어나고 일식이 일어나는 변고가 자주 있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경고로 생각하였고 원제도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선정(善政)을 펼쳐서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안정된 세상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선정이라고 선택한 방법은 고차 대사면령(大赦免命)을 내리는 일이었다. 죄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풀어주면 감옥에 들어 간 사람들은 모두 환영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감옥을 만들지 말고 무슨 죄를 짓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선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너무도 짧은 견해였다.

이렇게 해 놓고 원제는 당시에 존경받는 학자인 광형(匡衡)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혹시 대학자로 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광형은 일단을 황제를 조금은 치켜세워야 했다. 그래도 상대가 황제인데 처음부터 비판할 수 없어서였을 것이다.

그는 “폐하께서 몸소 성스러운 덕을 베푸시고 태평성대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리석은 이민(吏民)들이 법령에

저촉되어 있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매년 크게 사면하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행동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시니 천하는 아주 다행입니다.”라고 하였다. 사면령 내린 것을 칭찬한 것이다.

그러나 광형의 칭찬은 진정한 칭찬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면령은 근본 대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사면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매년 사면을 하면 범죄자가 줄어들어야 할 터인데, 오늘 사면을 받고 나서 내일 바로 범법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나타나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줄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대사면령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 사면에 관여 후한대의 역사학자 순열(荀悅)은 전한의 혜제(惠帝)와 문제(文帝)의 시대에는 사면령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으면서 태평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면령을 내렸다는 것부터가 이미 두 가지의 정치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았다. 하나는 어떻게 사회가 범법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게 정치를 했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재판을 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다시 빼준다는 것은 재판을 잘 못했다고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형도 후대에 역사학자 순열이 비판한 것과 같은 문제를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원제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오늘날 천하의 풍속은 재물을 탐(貪)하고 의(義)를 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음약과 여색을 좋아하여 위에서는 사치하면서 친척들에게 베푸는 은혜는 얽어지고 훈인을 맺은 무리의 일은 응성해지고 있습니다. 구차하게 합하여 요행을 얻어서 몸으로 이로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미 의(義)보다 재물(財物)을 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잘못되어 가는 근본 원인을 탐재천의(貪財賤義)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광형의 상소문을 읽노라하면 거의 2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로 들린다. 다시 광형은 탐재천의하게 된 잘 못된 시대가 된 데에는 더 근본적인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말한다. ‘조정에서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생긴다. 위에서 전횡(專橫)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속담으로 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상락하부정(上濁下淨) 즉, 윗물이 조금 더러우면 아랫물은 완전히 흙탕물이 된다는 말이다.

요즈음 신문을 펼치면 속이는 사건이 많이 나온다. 모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려는 사건들이었다. 속이는 것은 옳은 것을 짓밟는 것이니 천의(賤義)가 분명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자 했으니 탐재(貪財)가 아닌가? 딱 광형이 지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에 날 정도면 전문적 사기꾼의 짓일 터이고, 이러한 전문적인 사기꾼이야 요순(堯舜)시대에도 있었을 터이니가 어쩔 수 없다고 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조차 기회만 있으면 속이려 들고 있는 것을 어찌 보아야 할 것인가?

연전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더니,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이 직불금을 탔다고 했다. 또 얼마 전에 해나가 고생한다고 하여 보조금을 준다고 했더니 이번에도 바닷가에 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탔다는 것이다.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직불금을 탔으니 이 또한 탐재천의이다. 물론 해너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곳곳에서 속일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말하자면 아랫물이 온통 흙탕물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광형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일반 백성들이 탐재천의한 것은 뒷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문회라는 것을 보면 자식 진학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위반하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주민법을 위반한 것은 천의(賤義)이고, 좋은 학교에 가려는 것은 장차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탐재(貪財)이다. 이처럼 뒷사람들이 탐재천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 아랫사람들은 당연히 탐재천의하게 된 것이다.

탐재천의는 그렇게 든든하게 버티 온 한왕조의 유제(劉氏) 왕조를 서서히 무너트린 바늘구멍이었다. 한왕조를 버티기 위하여서는 걸로 선정(善政)처럼 보이는 사면령(大赦免命)을 자주 내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윗분들’의 도덕성 회복에 있지 않을까? 주민법 여기고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고해성사하고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그래도 우리 사회는 쇠망(衰亡)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 터이지만 언제 그런 분이 나올까 기다려 본다.

안동권문의 역사 안동권씨종보 국립중앙도서관서 대출 가능

안동권문은 전국의 수많은 성씨 중에서 매월 종보를 발행하는 유일한 성씨이다. 대부분의 성씨들은 팜플렛 4면 수준의 종보를 발행하고 있으나 안동권문만은 매월 8면의 일간지 크기 수준의 8면 종보를 신문답게 발행하고 있다.

안동권씨종보야말로 매월 1일자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자 신문다운 신문이다. 안동권씨종보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종회에서는 안동권씨종보가 공공기관에서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에 매월 종보를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4일 편집국장 권윤도원수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찾은 적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 검색사이트에서 안동권씨종보를 검색했더니 1993년 2월 1일자부터 검색이 되었다. 그래서 편집국장은 직접 2018년 12월 종보 대출을 직접 신청해 보았다. 신청한 지 10여분 후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출한 2018년 12월 종보

직원이 수장고에서 종보를 가져와서 대출해 주었다.

종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때 종보는 단순히 안동권문민의 소식지나 소통매체를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자 안동권문의 역사이기도 하다. 또한 안동권문

의 자랑스러운 자존심이며 자긍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안동권씨종보는 안동권문의 실록(實錄)이다. 이렇게 본다면 안동권문의 100만 족친은 역사의 주인공이자 기호(記號)로 역사를 직시하며 행동하는 사관(史官)이라 할 수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한글 서예가 권명원씨 한국미술국제대전 대상



한글서예가 목재 권명원씨는 미국에 거주한 지 30여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열린 제 25회 한국미술국제대전에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권명원씨는 작은 글씨 ‘글’을 한 자 한 자 새겨 완성한 세종대왕 초상과 훈민정음 서문을 내려 쓴 ‘세종대왕’으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권명원씨는 “올해(2018년)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라서 이를 기념하고자 제작한 작품”이라며 “우리민족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없었다면 아직도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글의 고마움과 세종대왕의 어진 모습을 한자 한자 적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글과 서예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또 누구보다 한글과 서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서예가로서 그 자신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 ‘한글’과 하나가 됨에 따라 공공외교에 앞장서는 문화외교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미국 내의 다양한 문화계 속에서 문화외교를 하려면 내게서 풍기는 모습이, 내 문화가 가장 한국적이어야 한다. 이런 면이 바로 문화외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28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 별관에서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한글을 그리다’ 전시회 개최했다. 또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어록집을 통해 독립정신을 되새겨보며 미국사회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현 재

- ▶대한민국 미술대전 (미협·국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초대작가(미술문화원)
- ▶한국미술국제대회협회 자문위원
- ▶워싱턴 한미미술가협회 고문(Washington DC)
- ▶워싱턴 한글학교 협의회 이사
-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문화분과 자문위원

안동권씨 종보 구독 확장 협조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전통이자 역사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100만 족친의 소통매체입니다.

지역종친회를 중심으로

1인당 10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하여 더 크게 화합합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